

보건소 영유아 영양사업 실태와 보건소 종사자와 영유아모의 영양사업 요구도*

구재옥[†] · 최경숙¹⁾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Status and Needs for Nutrition Service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among Public Health Center Workers and Infants' Mothers

Jaek Koo,[†] Kyungsuk Choi¹⁾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¹⁾ Daejin University, Pocheon-Gun,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nutrition services for infants in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need for nutrition services of health workers and infants' mothers. The study subjects were 146 health workers and 197 infants'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At present, the only major nutrition services for infants were vaccination and dental care. Prope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s were not available to infants. Nutrition knowledge scores were 16.8 for health workers and 15.3 for mothers out of 20 possible points. Health workers strongly demanded a well-organize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government support, audio-visual materials and the employment of a community nutritionist. The public health workers, in particular, demande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breastfeeding and weaning. The infants' mothers demanded services of nutrition information and teaching of cooking and menu planning. Based on thi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mployment of a community nutritionist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nutrition service programs for infants are needed very urgently for public health center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 : 354~360, 2001)

KEY WORDS : health worker · nutrition service for infants · nutrition service needs.

서론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 발전, 문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 및 영양개선, 보건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염성 질환의 감소와 수명 연장은 노령 인구의 증대와 만성퇴행성 질환의 두드러진 증가를 가져왔다(김찬호 1993 ; 오승호 1998). 따라서 현 우리 나라의 보건정책은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

체택일 : 2001년 7월 18일

*이 논문은 1997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연구 되었음(과제번호 HMP-97-F-40014).

Corresponding author : Jaek Koo,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sung-dong Jongro-gu, Seoul 110-791, Korea
Tel : 02) 3668-4643, Fax : 02) 3668-4188
E-mail : cokoo@mail.knou.ac.kr

활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보건소의 기능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서 건강 증진 주체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개선사업, 식생활 지도 등이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로 요구되고 있다(모수미 등 2001 ; 변중화 1997 ; Fortmann 등 1994 ; Timmer 1994).

우리 나라는 1962년 보건소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보건소의 업무에 영양개선이 명시되었다. 1995년 9월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1995년 12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여 보건소의 주요기능으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 증진사업 실시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박용수 1992 ; 손정숙 1998).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1992년에 보건소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1994년 8월부터 전국

32개 보건소에 자원봉사 영양사를 주축으로 시범적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김혜련·박혜련 1997). 지역보건법령(보건복지부 1995)에는 보건소에 영양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중 약 50개소에만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다(계승희·신애자 2000). 이런 실정에 의해 전문인력에 의한 지역사회 영양사업이 수행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서도 시범영양사업의 서비스를 받아본 주민의 영양서비스 요구도는 매우 높았고 생활 개선에 대한 조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 보건소 영양서비스가 영양정보 제공처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박혜련 등 1999).

영유아기는 태아기 다음으로 두뇌를 비롯한 신체 모든 조직의 성장과 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보건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보건소 영양사업의 매우 중요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모유수유율을 나타내며(최경숙 2000),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평균적으로는 양호하나, 이미 영유아시기에도 영양상태의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어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최경숙 등 1997; 최영선 등 1998).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의 현장에서 임신·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수요자 중심의 적절한 영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건소의 건강관리 실무자 및 영양사업 종사자들과 3세 이하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유아 대상의 지역사회 영양사업 실태와 요구에 대해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영유아 영양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전국 보건소 건강관리 실무자와 영양사업 종사자(이하 보건소 종사자라 함) 146명과 영유아 어머니 197명을 대상으로 1998년 1~11월에 설문조사 하였다. 보건소 종사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들은 3세 이하 영유아의 어머니로서 경기도 과천시 보건소(57명)와 서울 상계동의 개인병원(140명)에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어머니였다.

2. 조사 내용

1) 일반 환경

보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연수, 전문분야 및 주요 업무, 소속된 보건소의 규모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어머니들의 나이, 교육정도,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2) 영양지식

보건소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인 영양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영양 지식 평가 문항은 김기남·이경신(1996)을 참고로 하여 열량 및 영양소의 역할과 부족증, 함유식품 등에 관한 지식과 콜레스테롤, 비만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분 및 가공식품, 기호식품, 무공해 식품 등에 관한 지식을 서술형으로 제시한 후, '옳다', '틀리다', '모르겠다'의 3지 선택형으로 구성하였다. 총 영양지식 점수를 계산할 때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오답으로 간주하였고, 정답이 맞는 개수의 합을 20점 만점으로 고려하였다.

3) 보건소 영유아 영양사업 실태 및 요구 사업

현재 실시 중인 보건소의 영유아 영양사업 실태, 영유아 상담 빈도 및 내용, 보건소 자료의 전산화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고,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하였으며 필요한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의 내용과 매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3.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는 SPSS(SPSSPC + 10.0)(SPSS 1986)를 이용하여 변수 내용에 따라 빈도와 평균을 구하고, χ^2 -검정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보건소 종사자 및 보건소의 특성

조사 대상 보건소 종사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근무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가 48.6%, 강원도가 8.2%, 전남이 7.5%, 경남이 6.2%이었다.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72.6%, 보건직 공무원이 17.1%, 영양사가 4.8%, 의사가 0.7%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연수는 평균 $10.6 \pm 6.0(1.8 \sim 26.0)$ 년이었고, 10년 미만이 49.3%, 10년 이상이 50.7%로 장기 근무자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 대상 보건소에서는 부서별로 각각 10명 이내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보건소마다 보건행정계의 담당 직원의 비율이 82.5%, 예방의약계 78.9%, 가족보건계 73.4%, 검사계 56.2%, 모자보건계 47.6%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건행정계의 직원수는 10명 미만이 33.6%, 10~20명

미만이 33.1%, 20~30명 미만은 12.4%, 30~40명 미만은 3.4%로 직원수가 보건소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계는 40.6%가 10명 미만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모자보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보건소도 1.4%로 나타났다. 가족보건계는 보건소마다 적어도 1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보건소 중 66.2%만이 영양사가 있었으나 이들 영양사는 담당업무가 급식업무, 행정 지원, 방문자 영양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 영양사들은 보건영양사 이기보다는 급식영양사가 영양서비스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Table 1. Locations of surveyed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specialties of the health workers

Variables	Characteristics	N(%)
Health center location	Seoul, Gyeonggi	71(48.6)
	Kangwon	12(8.2)
	Cheonnam	11(7.5)
	Gyeongnam	9(6.2)
	Others	43(29.5)
Specialty	Nurse	106(72.6)
	Public health official	25(17.1)
	Dietitian	7(4.8)
	Doctor	1(0.7)
	Others	7(4.8)

2. 조사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영유아 어머니는 남아의 어머니가 51.4%, 여아의 어머니가 48.6%이었으며, 영유아의 나이는 1세 이하가 30.3%, 1~2세이하는 43.2%, 2~3세이하는 26.5%이었다. 영유아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30.9(25~40)세로 20대가 19.7%, 30대가 70.1%의 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3.6%, 100~150만원이 20.8%, 150~200만원이 44.7%, 200만원 이상이 23.4%이었다.

3. 보건소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의 영양지식 정도

보건소의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의 영양지식 문항별 정답자의 비율은 Table 2와 같다. 90% 이상의 정답율을 보인 항목이 보건소 종사자는 12문항, 어머니들은 10문항으로 나타났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을 굶어야 한다', '단백질은 근육, 혈액 등 몸의 조직을 만드는 영양소이다', '칼슘은 우유나 뼈째 먹는 생선 등으로 섭취할 수 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열과 힘을 내는 영양소이다', '밥, 빵, 국수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다', '가공식품은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 '두부는 좋은 단백질 식품이다', '사람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은 영양소를 필요로 한다', '단백질 영양을 위해 콩밥을 먹는 것이 흰밥을 먹는 것보다 좋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 등이 종사자와 어머니의 정답자 비율이 90% 이상인 문항이었다.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n questions about nutrition knowledge

Question items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Health officials	Infants' mothers
Meat or milk are ideal food that contain all nutrients for body.	72.9	65.9
Cooked rice and peanuts in the same amount have same amount of energy.	60.6	41.2
Skipping breakfast is needed for weight reduction.	97.3	95.7
Small eating of high-fat foods is good for health.	44.1	69.4
Protein is nutrient for the formation of body tissue.	92.4	90.5
Cholesterol is indispensable for humans.	81.0	57.1
Calcium intake can be obtained from milk and small fish.	98.6	100.0
Carbohydrates and fat are nutrients for calories and power.	97.2	91.7
Cooked rice, bread and noodles are carbohydrate foods.	97.9	95.1
Instant food are not harmful to health, even if we have much.	97.3	94.0
Animal fat is better for health than vegetable oil.	95.2	89.7
Carbonated beverages, such as coke or cider, have no calories.	96.6	88.6
Tofu is a good protein food.	99.3	98.9
Drinking water also cause obesity.	86.9	89.6
All people need the same nutrients equally.	94.5	91.8
Uncontaminated or natural foods are more nutritious.	51.4	29.5
Bean-mixed rice is better than plain white rice for good protein nutrition.	95.2	96.2
Iron deficiency leads anemia.	97.2	98.4
Osteopathy or osteoporosis is caused by a deficiency of calcium.	82.8	95.1
Vitamin supplements prevent a cold.	57.6	27.3

‘무공해 식품이나 자연식품은 보통식품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비타민 영양제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의 문항이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총 20문항에 대한 정답 문항의 수를 합한 영양지식 점수는 종사자는 16.8 ± 1.9점이었고, 어머니들은 15.3 ± 1.8점으로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으며, 보건소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들의 영양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점수별 분포는 Fig. 1과 같이 보건소 종사자의 분포가 어머니에 비해 약간 오른쪽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 종사자의 전문분야별 조사대상자의 수가 통계적 추론을 하기에는 부적당하여 그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의사는 15.0점, 간호사는 17.1점, 영양사는 16.7점, 보건직 공무원은 16.1점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엄마들의 영양지식 정도에 비해 보건소 종사자들의 영양지식 정도는 양호하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들이 바람직한 지역사회 영양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보건소 영유아 영양사업 실태

1) 보건소 이용 영유아의 수

조사 대상 보건소의 총 방문 영유아의 수는 Table 3과 같이 한달 평균 0~1세 이하는 평균 704.8 ± 696.4(2~3,000)명, 1~3세는 364.2 ± 464.6(5~3,000)명이었다. Table 4의 보건소 방문 영유아의 수에 따른 보건소의 분포를 보면 10명 이내의 영유아가 방문하는 작은 규모의 보건소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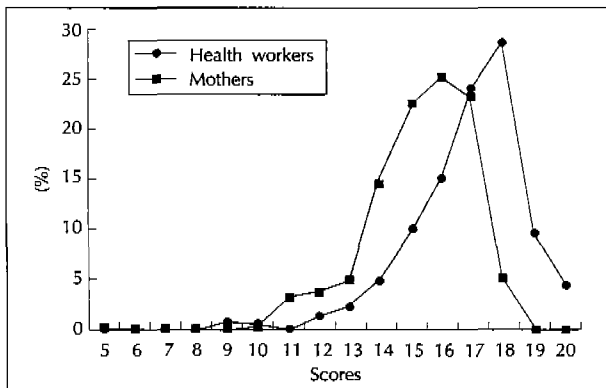


Fig. 1. Nutrition knowledge score.

었으며, 1,000~3,000명이 방문한다고 응답한 보건소도 있었다. 0~1세이하의 영유아가 1~3세이하 영유아에 비해 보건소 방문의 빈도가 훨씬 높았다.

조사 대상 보건소의 예방접종 영유아의 수는 월 평균 990.8 ± 950.3(4~3520)명이었다(Table 3). 조사 대상 보건소별 예방접종 영유아 수의 분포는 Table 4와 같이 1,000~3,000명인 보건소가 35.0%이었고, 500~1,000명이 17.9%, 100~500명이 26.8%로 나타났다.

2) 현재 실시 중인 영유아 관련 사업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영유아관리사업에 대해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예방접종(100.0%) > 구강보건관리(82.9%) > 보건 간호사 가정방문지도·서비스(81.5%) > 혈액 검사(78.1%) > 치아 불소 도포(71.9%) > 이유식 실시 지도(71.2%) > 유아원·유치원을 통한 환자 발견(63.0%) > 성장발육 상태의 월별 판정(55.5%) > 지체장애·심장 질환 아동의 발견 지원(32.9%) > 편식교정 지도(19.2%) > 장애아 치료 서비스 지원(14.4%) > X-ray 검사(7.5%) > 중금속 중독 관리(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양사업으로는 영양제 보급, 취약전 아동 시력 검진, 보건 교육, 유아원 건강 진단, 모유수유 권장, 올바른 양육을 위한 산모교실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실시 중인 영유아 관련 보건소 사업은 주로 예방접종에 치중하고 있었고, 가장 높은 비율로 실시 중인 영양사업은 이유식 실시지도와 성장 상태의 월별 판정으로 보건소에서 실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영양사업의 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centers by numbers of infants for visiting and vaccination No. of public health centers(%)

	Visiting infants		Infants for vaccination
	0 < ≤ 1 yr	1 < ≤ 3 yr	
≤ 10 ¹⁾	5(4.2)	4(3.4)	2(1.6)
10 - 100	17(14.3)	21(18.1)	14(11.4)
100 - 500	34(28.6)	60(51.7)	33(26.8)
500 - 1,000	30(25.2)	22(19.0)	22(17.9)
1,000 - 3,000	33(27.7)	9(7.8)	43(35.0)
3,000 <	0(0.0)	0(0.0)	9(7.3)
Total	119(100.0)	116(100.0)	123(100.0)

1) No. of infants/month

Table 3. Numbers of infants visiting public health centers

Age	Total visiting infants	(No. of infants/month)	
		Infants for vaccination	Infants for counselling
0 < ≤ 1 yr	704.8 ± 696.4(2 - 3,000)	990.8 ± 950.3(4 - 3,520)	568.5 ± 913.1(5 - 4,000)
1 < ≤ 3 yr	364.2 ± 464.6(5 - 3,000)		

Table 5. Services for infants in public health centers

Contents	N(%)
Vaccination	146(100.0)
Dental care	121(82.9)
Home visiting service	119(81.5)
Blood test	114(78.1)
Dental spread of fluoride	105(71.9)
Management of weaning practice	104(71.2)
Patient discovery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92(63.0)
Monthly check of growth status	81(55.5)
Discovery of handicapped or heart diseased children	48(32.9)
Correction of one-sided food habits	28(19.2)
Medical services for handicapped children	21(14.4)
X-ray examination	11(7.5)
Management of heavy metals poisoning	2(1.4)

3) 영유아 상담건수 및 내용

영유아 상담건수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균 568.5 ± 913.1(5~4,000)명이었다. 보건소별 영유아 상담 건수의 분포는 Table 6과 같이 100~500명/월이라고 응답한 보건소가 38.4%로 가장 많았고, 1,000명/월 이상인 보건소는 14.3%이었다. 영유아 상담내용을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성장발육 체크(83.6%) > 질병 관리 상담(78.8%) > 이유개시 시기(78.1%) > 모유수유 방법(76.0%) > 이유식 실시 순서(56.8%) > 조제분유 선택 및 수유방법(50.7%) > 영아 질병시 식사요법(4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의 보건소 영양상담은 성장발육 체크, 질병 상담 등에 치중하고 있었고, 영유아 영양관리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상담내용으로 기형아 예방 상담, 영양상태 평가, 예방접종 시기 등이 있었다. 계승희·신애자(2000)의 보건소 시범 영양사업 실태보고에서도 영유아 이유식의 상담이 빈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상담 내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영양상담에 필요한 영양 연구 자료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영아의 식품섭취 패턴, 성장 단계별 이유 실시 방법 및 지침, 식생활 지침 등의 제공으로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의 질을 계속적으로 보강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보건소 자료의 전산화 정도

현재 보건소의 자료나 내방자의 자료의 전산화는 70.1%의 보건소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1.7%의 보건소가 내방자의 성별, 나이 등의 일반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9%가 일반사항 + 체중, 키를 전산처리 하고 있다고 하였고, 13.0%가 내방자의 일반사항

Table 6. Frequency of nutrition counseling of infants

No. of infants/months	No. of public health centers(%)
≤ 10	4(3.6)
10 < ≤ 50	17(15.2)
50 < ≤ 100	13(11.6)
100 < ≤ 500	43(38.4)
500 < ≤ 1,000	19(17.0)
1,000 < ≤ 2,000	5(4.5)
2,000 < ≤ 3,000	3(2.7)
3,000 < ≤ 4,000	8(7.1)
Total	112(100.0)

Table 7. The contents of nutrition counselling

Content	No. of public health center(%)
Assessment of growth performance	122(83.6)
Management of disease	115(78.8)
Onset timing of food weaning	114(78.1)
Method of breast feeding	111(76.0)
Sequence of weaning practice	83(56.8)
Choice of infant formula and method of formula feeding	74(50.7)
Diet therapy in disease	65(44.5)

+ 접종내용 또는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전산처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는 일반사항 + 상담내용을 전산처리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자료 또는 자료의 단순 보관정도의 현 실정으로는 보건소 방문자에 대한 추후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보건소 사업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자를 일종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임경숙(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양개선 사업에 의한 영양증진 효과 및 건강 증진 효과가 추후관리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정책입안자나 보건관련 공무원에 의해 영양사업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현실에서 기록의 보관을 통한 추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영유아 영양사업의 요구

1)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요구

보건소 종사자들이 현재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으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81.5%)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정부 지원(65.8%) > 시청각교재(45.9%) >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전담할 보건영양사의 배치(35.6%)를 요구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현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담 직원 및 예산도 부족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영양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정부 및 지

Table 8. Needs for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N(%)

Content	Health workers	Mothers
Nutrition information supply	98(67.1)	112(61.2)
Treatment of disease	42(28.9)	35(19.1)
Prevention of disease	110(75.3)	41(22.4)
Teaching of dietary habits	41(28.1)	3(1.6)
Nutrition education	101(69.2)	19(10.4)
Menu planning	44(30.1)	77(42.5)
Teaching of cooking	24(16.4)	78(43.1)
Education of hygiene	73(50.0)	26(14.4)
Management of infants and maternal nutrition	112(76.7)	98(54.1)

자체 정책담당자의 인식부족, 지역보건법에 의한 영양사의 확보가 미흡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어려움, 영양사업을 수행할 전문가의 부족 및 영양 정보 및 교육자료의 부족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김혜련·박혜련 1997), 영유아 영양 사업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 영양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영양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겠으며, 영양서비스의 개발은 소비자 요구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영유아 관련 보건소 영양사업 요구도

보건소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영유아 관련 보건소 영양사업을 복수응답 하게 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종사자들은 모자영양관리(76.7%) > 질병 예방(75.3%) > 연령별 영양교육(69.2%) > 영양정보 제공(67.1%) > 위생교육(50.0%) > 식단 작성(30.1%) > 질병 치료(28.9%) > 식생활 지도(28.1%) > 조리 지도(16.4%)의 순 이었고, 어머니들은 영양정보의 제공(61.2%) > 모자영양관리(54.1%) > 조리 지도(43.1%) > 식단작성(42.5%) > 질병 예방(22.4%) > 질병 치료(19.1%) > 위생교육(14.4%) > 연령별 영양교육(10.4%) > 식생활 지도(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무자들은 질병의 예방과 위생교육 등 예방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영유아 어머니들은 조리 지도, 식단작성 등 실제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영유아 영양사업의 개발시 적절히 활용하여 소비자 요구 지향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요구하는 영유아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선호매체

영유아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시 보건소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Table 9와 같이 모유수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가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유식의 체계적인 실시(음식의 종류 및 시기)(89.7%)

Table 9. Needs of infant's nutrition service program and material for health workers

Content	N(%)	Preferred materials ¹⁾
Breast feeding	134(91.8)	L, B/OHP/S/Personal counseling/Practice
Effective weaning practice	131(89.7)	L,B/OHP,Practice/S
Desirable eating habit formation	126(86.3)	L,B/OHP/S
Management of infant's snacks	115(78.8)	L,B/OHP/S,Practice
Assessment of growth performance	75(51.4)	

1) It showed by degree of needs(1st/2nd/...), L : Leaflet, B : Booklet, S : Slide

> 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86.3%) > 영유아의 성장 평가(51.4%)로 나타나 구체적인 모유수유 방법과 이유식의 실시 및 식습관 형성 등에 대해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각 내용별 선호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책자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교육 시 다른 매체는 작동기구가 필요한 반면 책자는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전국 보건소 건강관리 실무자와 영양사업 종사자(이하 보건소 종사자라 함) 146명과 영유아 어머니 19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영양사업 실태 및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하여 영유아 대상의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종사자의 전문분야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직 공무원, 영양사, 의사 순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근무연수는 평균 10.6년이었고, 영유아 어머니의 나이는 평균 30.9세이었다.

2)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관리 사업은 예방접종과 구강보건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영양사업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양지식 점수는 종사자와 영유아 어머니들은 비슷하였다. 보건소의 자료나 내방자의 자료의 전산화는 70.1%의 보건소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4) 보건소 종사자들이 현재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으로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한 정부 지원 > 시청각교재 >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전담할 보건영양사 배치의 순 이었다.

5) 영유아 영양사업의 요구는 종사자들은 모자영양관리 > 질병 예방 > 연령별 영양교육 > 영양정보 제공의 순 이

었고, 어머니들은 영양정보의 제공 > 모자영양관리 > 조리 지도 > 식단작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질병의 예방과 위생교육 등 예방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영유아 어머니들은 조리 지도, 식단작성 등 실제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영유아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시 보건소 종사자들은 모유수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요구가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유식의 체계적인 실시(음식의 종류 및 시기) > 유아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 > 영유아의 성장 평가로 나타나 구체적인 모유수유 방법과 이유식의 실시 및 식습관 형성 등에 대해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각 내용별 선호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책자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시범보건사업 보건소가 아닌 경우는 보건소의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보건영양사가 배치되어 영양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종사자들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종사자들에게도 영유아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양관리에서 모유수유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포함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매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계승희 · 신애자(2000) : 보건소 시범영양사업 실태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25) : 343-351
 김기남 · 이경신(1996) : 남녀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 : 89-99
 김영옥 · 장경희 · 김미경(2001) : 보건소 영양서비스 이용실태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1) : 91-96

김찬호(1993) : 보건영양사업의 효과 및 향후 방향. *대한영양사회 심포지움 자료집*, pp.85-93
 김혜련 · 박혜련(1997) : 보건소 영양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pp.33-1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수미 · 구재옥 · 박양자 · 박영숙 · 손숙미 · 서정숙(2001) : 지역사회영양학. *교문사*, pp.207-224
 박용수(1992) : 우리나라 보건소 업무 및 보건영양사업의 필요성. *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pp.25-48
 박혜련 · 권지영 · 조경자(1999) : 보건영양사업의 현황과 전망 II. 시범보건소 영양사업 지역 주민의 보건영양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대한영양사회학술지* 5(1) : 54-63
 변중화(1997)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3 : 31-38
 보건복지부(1995) : 지역보건법
 손정숙(1998) : 21세기 영양사업 발전방향. *국민영양* 98(7) : 12-19
 오승호(1998) :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소영양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주보* 1178 : 3-4
 임경숙(1997) : 보건소 영양사업 활성화 전략. *국민영양* 97(11) : 2-11
 장경희 · 김영옥(2000) : 보건소 영양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요구도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3) : 529-536
 최경숙(2000) : 포천시영유아의 수유 및 성장발육상태와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모유영양지식 정도의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4) : 569-577
 최경숙 · 최혜미 · 임경숙 · 김주혜 · 김숙배(1997) :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의 성장발육 상태에 관한 횡단적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1) : 3-12
 최영선 · 오기화 · 양경미 · 서정숙 · 신순문(1998) : 영아의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및 섭식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1) : 3-11
 Fortmann SP, Willoams PT, Hulley SB, Hankell WL, Farquhr JW (1994) : Effect of health education on dietary behavior-The Stanford three community study. *AJCN* 34 : 2030-2038
 SPSS(1986) : SPSS^x user's guide, 2nd ed. New York : McGraw-Hill
 Timmer CP(1994) : Nutrition policy in public health, rationale and approaches. In : Bronner F, eds. *Nutrition policy in public health*, pp.3-16, Springer, NY